전남대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가치봄영화제' 초청

조벼리·박현영·장해영씨 제작
영화제 비경쟁부분 초청작 선정
장애·비장애인 세 친구 우정 다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가 서울에서 열리는 '가치봄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전남대 조벼리·박현영·장해영(이상 신문방송학과 3년·지도교수 배지양)씨가 제작한 단편영화 '우리의 바다'〈사진〉는 오는 11월 11~14일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1958점에서 열리는 가치봄영화제 비경쟁부분에서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우리의 바다'는 장애를 가진 수영과 지민, 비장애인 민영 세 친구의 우정을 다룬 영화다. 장애에 대한 시선과 이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영화는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동문모임인 '푸른꿈후원회'가 장학금 형태로 제작비를 보태고, 대학이 최신 영상장비를 지원해 만들어졌다.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주관하고, 영상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가치봄영화제'는 영화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영화제다.

올해로 22회를 맞았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제작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두 57작품이 상영작 공모에 출품됐다.

유종원 신문방송학과장은 "학생들의 활동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난해 전국대학생영상전과 광주시 영상제에서 잇따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학의 지원과 동문들의 후원이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라이온스 355-B1지구, 인재양성 후원금 1200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2020-2021 회장단(회장 고광민)이 최근 인재양성지원과 그룹홈 아동지원을 위해 후원금 12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광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비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2개 기관의 생활환경개선, 학습·생계비로 각 600만원씩 지원될 계획이다.

고광민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무더위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인재양성 학생과, 그룹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프라임제약 복지단체 등 4곳에 후원물품

한국프라임제약(대표 김대익)이 최근 광주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 동구 노인복지관, 나주 계산원, 전북 봉동 우동경로당 등에 쌀, 과일, 방역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달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매년 명절마다 계산원에 후원금 1000만원과 생활필수품, 건강기능식품, 방역 마스크 등을 전달하는 등 소외 이웃과 함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자회사 프라임팜(주)에서 생산한 블랙베리펄,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루테인, 쌀, 과일, 방역 마스크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양승철 한국프라임제약 전무는 "최근 기업은 더욱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업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 나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과 정도경영을 포함한 ESG(환경과지배구조)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프라임제약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전임직원들이 더욱 참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다산베아채 장보성·김유림 부부 강진군에 아동 복지기금 기탁

강진군은 다산베아채 골프앤리조트 장보성·김유림 대표 부부가 관내 어려운 아동들이 365일 행복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강진군에 365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자녀 돌잔치를 하기보다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강진군은 전했다.

다산베아채 설립자 고 김호남 회장의 셋째 사위이기도 한 장 대표는 "장인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에 봉사하고 나누는 기업과 가족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강진군 소재 아동시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8년 11월 개장한 다산베아채는 45만평 부지에 청정 강진만을 품은 27홀 대중제 골프장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최영호 한전 감사,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매해 기부

한국전력공사 최영호〈왼쪽〉 상임감사위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15일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회공헌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소외계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 감사위원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방문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마련한 물품을 광산구 어등자활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운동맛집 5분 레시피(재) 55 UHD 숨터	00 빨강 구두 스페셜	30 꾸러기 식사교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구해줘! 숙소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당신이 혹하는 사이 2(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너라 조선클럽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 분야〉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2(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늘 2 15 몬스터 탑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15 KBC 저녁뉴스 30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자 토론회
6		30 2TV 생생정보	25 더불어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 구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1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재)	00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송영길 vs 이준석, 민심을 읽다〉	00 대한민국 아이디어 리그(재)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30 광주MBC 다큐플렉스 핑크피쉬	30 당신이 혹하는 사이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살림하는 남자들(재)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2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사랑의 가족(재)	00 검은태양 : 데이브레이크(재) 2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로보카 폴리
07:15 두다다쿵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한글용사 아이야
08:45 꼬마버스 타요
09:00 시몽
09:15 봉구야 말해줘3
09:30 통통가족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2:10 EBS 부모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4:10 명의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25 클래스 e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6:00 페파 피그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내 친구 몬덕이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18:00 생방송 방과 후 듄듄
19:05 미스터 마구
19:35 자이언트 펭TV
19:50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0:4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맛을 찾아서-거리의 맛〉
21:30 한국기행
〈지금 여기, 여유롭게 4부
행복을 짓고 있어요〉
21:5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22:45 한국에 산다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5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6일(음 8월 10일 丁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세차게 쏟아질 것이니 우선 피하고 봐야한다. 48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니라. 60년생 겉모양은 허술해도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72년생 돈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느니라. 84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 될 것이다. 96년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6, 87

丑 37년생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49년생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주견을 가져라. 61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73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처가 결실을 낳으리라. 85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7년생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7, 80

寅 38년생 순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50년생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62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74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86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생산적인 관계로 이끌 것이다. 98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77

卯 39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1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3년생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돌파구가 보인다. 75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87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99년생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69

辰 40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52년생 수용하는 것이 대국을 유지하는 길이다. 64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76년생 짐을 진채 거친 숨을 쉬면서 오르막길을 오름에 비유한만하다. 88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00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81

巳 41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용이 하도다. 53년생 예정된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65년생 숨은 속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느니라. 77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9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한다. 01년생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70

午 42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수습해야 뒤탈이 없다. 54년생 이합집산 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66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겠다. 78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90년생 소득은 있지만 알찬 결과물은 아니다. 02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6, 78

未 43년생 노력을 전제한다면 유익한 국면에 이른다. 55년생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 있는 판세에 비유할 만하다. 67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79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번성하는 운로이다. 91년생 낱낱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03년생 점점 복잡한 단계로 접어든다. 행운의 숫자 : 48, 82

申 32년생 가변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44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56년생 결정적인 때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 68년생 오해로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제반사에 삼가라. 80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6, 56

酉 33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45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57년생 만남과 대화 속에서 깊은 혜안을 가질 것이다. 69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81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목적지에 무난하게 진입하리라. 93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4, 76

戌 34년생 현태가 매우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합목적적인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판시세라 할 수 있다. 58년생 사소한 집착이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70년생 재난은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된다. 82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94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니라. 행운의 숫자 : 23, 83

亥 35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47년생 방법만 달리한다 해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9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71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83년생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95년생 쇠뿔도 단 김에 빼랬다. 행운의 숫자 : 27, 96